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음 2월 26일) 제17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수출, 선박 악조건 속 '선전'

지난 2월 도내 수출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2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은 전년 동월(5억2,400만달러) 대비 4.6% 감소한 4억9,943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 2월 실적 미미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수출이 지난해 2월, 7,500만 달러에 달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수치이며, 동 품목을 제외한 경우 2월 전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정밀화학 원료의 수출 관할지 변경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난 중국이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인도, 대

▶ 2월 전북 무역동향

전년대비 4.6% 감소

자동차 부품이 1위 품목

농기계수출, 지난해보다

1000% 이상 성장세

선박류, 수입 2순위에

만을 제외한 10위 이내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크게 성장했다.

한편 브라질(전년 대비 302.1%), 러시아(동 306.4%)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브라질로는 자동차 부품(동 424.9%)이, 러시아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동 1658.3%)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전북지역 1위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이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 수출은 올 2월 전년 동월 대비 66.8%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농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가 일부 변경되면서 '트랙터'의 품목 분류가 기존 자동차에서 농기계로 조정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의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 중 1.16% 비중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3억 6,156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1억 3,788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밀화학 원료를 제외한 5대 품목의

수입이 일제히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화물선 수입의 영향으로 선박류가 수입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입이 선박류와 농약 및 의약품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미국의 식물성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합성원료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본부장은 "사드 배치를 위한 최종 합의 이후, 중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차별적 불이익 제공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역 1위 수출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검찰 조사 마치고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매일 INDEX	
3면	- 이재명·안희정, 전북 방문
16면	- 전주호 장수경찰서장 취임 100일
본사 인사	
▲군산본부 문정곤 부장	
명: 의원면직	(3월 23일자)

지역 인재 채용 발벗고 나섰다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전북 땅을 밟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전북 지역인재 채용 노력에 한창이다.

공사는 지난 8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도내 대학교 관련학과를 방문해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많은 지역인재들이 공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채용목표제를 실시함에도 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높지 않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로 채용하는 지적촉량분야의 지원자가 적다는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채용설명회는 구직자가 설명회 현장을 찾아오는 방식의 대규모 행사였던 반면, 이번 설명회는 공사 입사에 관심 있는 학교 현장을



LX공사, 도내 대학교 방문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열어 올 상반기 신규채용 4월부터

직접 방문해 소규모 단위로 수요자 맞춤형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의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채용방법, 채용계획 안내, 해당 학교 출신 신입사원에게 직접 생생한 취업비결을 들을 수 있으며, 23일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이어 오는 4월에는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대상으로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명식 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지역인재들이 공사 입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외에도 관심 있는 학교나 학과의 신청이 있으면 대학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150명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은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 올해도 75억원 지원

'내수면 양식 전국 1위' 명성 이어간다

삼락농정 활용 신규사업 발굴 생산자단체모임 운영 어업인 소득증대 적극 매진

전북도가 올해에도 내수면 양식에 75억원을 지원해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내수면은 국토면적의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면양식은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유어낚시,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건강과 심미적 향상에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는 수산업의 중요한 분야이다.

내수면 양식은 1980년대까지 성장일로를 걸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규제 강화 등으로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말았으며, 결국 댐, 호수 등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이 모두 철거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관리와 육상 양식업의 활성화로 생산량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내수면 양식현황은 643건에 265ha로 전국 2,525건 851ha의 31.1%를 점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내수면 어류들은 좋은 토질과 맑은 물로 양식해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 전국 각지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향어의 경우 경상도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80%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주요 생산 어종들은 전국대비 향어 1,342(78%), 미꾸라지 611(76%), 금붕어 34(71%), 동자개 173(70%), 메기 1,849(40%), 뱀장어 2,607톤(26%)이며, 생산량은 6,943톤으로 전국대비 19.6%(전국2위), 생산금액 또한 946억 6500만원으로 전국대비 22.7%(전국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내수면양식협회 9개소 중 4개(미꾸라지, 향어, 동자개, 메기) 대표를 전북에서 맡고 있는 등 내수면 양식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부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 등 영세어업으로 양식산업 인프라가 미흡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북도에서는 내수면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 75억원을 지원해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호남과 영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와, 시도 해양수산정책 협의회시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해 해수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삼락농정(수산분과)을 적극 활용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내수면 양식 생산자단체모임 운영, 소비활성화 방안, 해수부 자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전국 내수면 양식 일번지의 명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양식어종의 소비위축에 따른 판로 확대와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판촉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

해 추경 예산에 대비 반영은 물론 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내수면 양식수산물 이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 공모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양식어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익산시 "암 집단발병 원인 의심업체 수사의뢰할 것"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익산시 합라면 잠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합라면 잠점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근 비료공장에서 연초박과 화재 폐기물로 보이는 물체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은 폐기물 중환처리업을 폐업한 업체로 채취한 시료가 연초박과 화재 폐기물로 판명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시는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가 연초박과 화재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부안마실축제에 오시면 오목이 가득합니다. www.buanmasil.com

"어화세상벗님네야~ 복받으러마실가세~"

2017.5.4(목)~5.6(토)

부안 마실축제 제5회

주관 부안마실축제추진위원회
 축제주최 부안예술회관(전북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전북 부안군 일원(주행시장·부안읍)